



2026. 8. 4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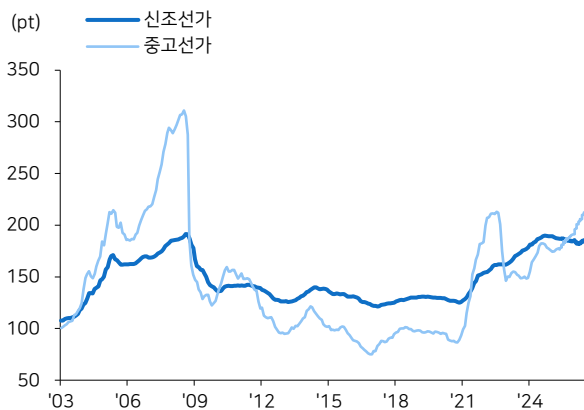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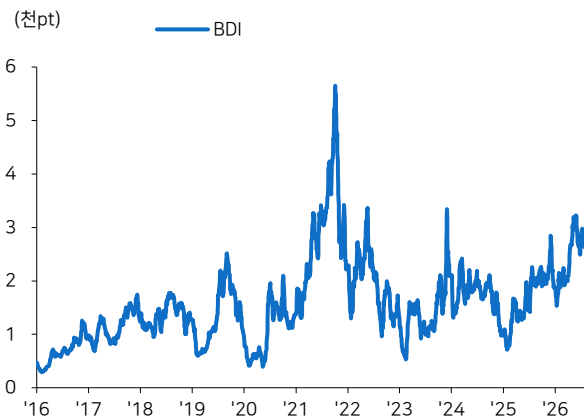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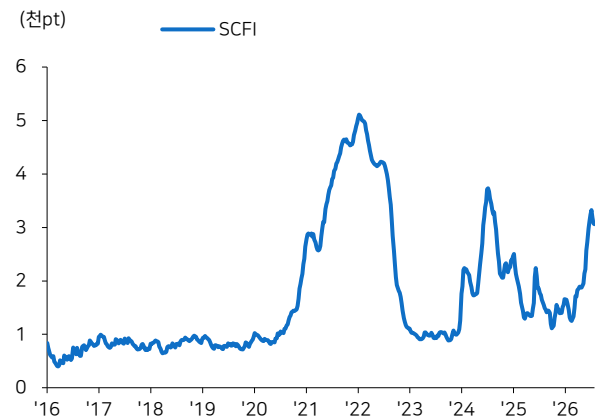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32.0p (+5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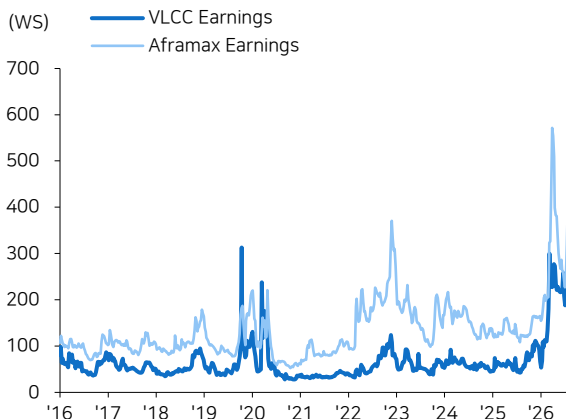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06.0(+143.0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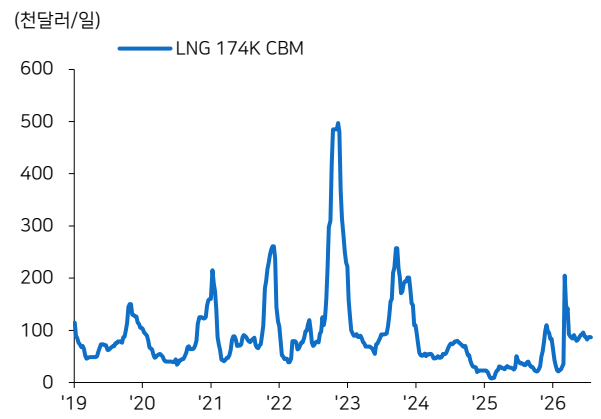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54.9WS (+26.8p WoW)



LNG Spot 운임

79.8천달러 (-6.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태국 호위함 최종계약만 남았다...해군 대변인 "선정절차 완료 승인단계 진행" (더구루)

<https://zrr.kr/oCCdQn>

한화오션이 7,000억 원 규모의 태국 왕립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 1차 자격 및 기술 심사를 단독 통과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확실시됐다고 보도됨. 현지 정치권의 특혜 의혹 제기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태국 해군은 반부패기구 참관 하에 증거 기반의 투명한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상급기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OCEAN-40F' 모델을 앞세워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번 1척 건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후속 3척을 포함해 총 4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를 선점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알려짐.

Ditas to triple suezmax tanker fleet with second newbuilding order in a week (TradeWinds)

<https://zrr.kr/mp4TU9>

튀르키예의 Ditas Tankers가 대한조선에 이어 삼성중공업에도 Suezmax급 원유운반선 2척을 발주하며 약 10년 만에 신조 시장에 복귀한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 규모는 2,680억 원으로 척당 약 9,300만 달러에 달하며 2029년 8월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해당 선사는 최근 일주일간 두 건의 계약을 통해 총 4척의 신조선을 확보하며 기존 2척이었던 Suezmax 선단을 6척으로 대폭 확장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해 상선 수주 목표액인 57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며 총 58억 달러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짐.

여한구, 美 11 개 주지사 연쇄 면담...원전-조선 협력 논의 (노컷뉴스)

<https://zrr.kr/2XmtwV>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미주지사협회 하계회의에 참석해 미국 11개 주 주지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자동차, 배터리, 원전,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 한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특히 테네시, 오클라호마, 유타 주지사들과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전주기 혁신 캠퍼스와 연계한 원전 협력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해짐. 또한 지나 러몬도 전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선 및 원전 등 산업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알려짐.

철강·조선 업계, '하투' 전운... 휴가철 이후가 두렵다 (국민일보)

<https://zrr.kr/5RaqHw>

철강·조선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조업계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타결이 잇따라 미뤄지면서 파업 현실화하반기 제조업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업계 전반에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난 노사 지형 변화가 맞물려 기업들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교섭 장기화와 중대재해 여파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름휴가 이후로 협상을 연기했으며, 한화오션 노사 역시 성과급 및 년별 연장 요구로 교섭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하청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고 현장 파업을 예고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 5,279 억 규모 여수엑코에너지 LNG 집단에너지 사업 수주 (이투데이)

<https://zrr.kr/hxlaam>

한화오션이 계열사인 여수엑코에너지와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에 조성될 490MW급 LNG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 5,27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됨. 이번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4.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8월까지로 전해짐. 대금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금될 예정이며 공사 과정에서 계약 기간과 최종 정산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알려짐.

Will Donald Trump extend his historically long waiver of the Jones Act? (TradeWinds)

<https://zrr.kr/IsVzBV>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존스법(Jones Act) 한시적 면제 조치가 오는 16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해운 업계와 워싱턴가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면제 조치 이후 외국적 선박이 미국 내 연안 항로에 투입되면서 약 200건의 운항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러시아 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유조선이 미군 기지 인근 항구에 화물을 하역한 사례를 두고 국가 안보 우려와 함께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해짐. 면제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국내 해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연장 및 영구적 폐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